

고전문학 재번역과 재번역가설: 太宰治 『人間失格』 일한재번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박 미 정
(한국외대)

1. 서론

한국출판시장에서 발견되는 현상 중 하나는 해외고전작품에 대한 압도적인 양의 재번역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벨문학수상작가인 미국의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노인과 바다』의 재번역 작품 수는 한국이 70종¹⁾이 넘는 데 반해 일본에서의 재번역은 4종에 불과하다. 특히 헤밍웨이의 작품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2012년 이후 붓물 터지듯이 출판 시장에 재번역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53년, 1977년, 2013년, 2014년에 각각 1편의 번역물²⁾이 나오는 등 한국 출판시장과는 사뭇 다른 재번

* 본 논문은 2018년도 한국외대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1) 대역, 편역, 개정판, 전자판 제외

2) 福田恆存訳(1953年、チャールズ・E・タトル商会)

역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번역 중복 출판 현상은 『노인과 바다』와 같은 영어권 작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역시 한국에서 70종 이상 출판되었고,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은 50종 이상,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무려 100여종 이상의 재번역서가 출판되었다. 이렇게 한국출판시장에서 나타나는 고전에 대한 재번역 과열양상은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하나의 큰 특징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전의 재번역 범람은 위에서 예로 든 서양 작품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일본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윤상인 외(2008: 4)가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중문학, 순수문학을 막론하고 한국인 성인 독자의 외국문학 독서 총량 속에서 일본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다. 순수문학고전만을 놓고 보면, 노벨문학수상작가 카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雪国』에 대한 일한번역은 70종을 훌쩍 뛰어 넘고 있다. 특정번역가의 번역 작품이 출판시장을 독점하지 않고 있는 상황, 즉 1차적 지위(primary position)의 정진급 번역(canonical translation)이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출판사들은 새로운 번역가를 투입해 경쟁적으로 고전에 대한 재번역 출판물을 양산해내고 있다.

한국에서의 고전문학 재번역 과열양상은 상술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출판계의 하나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외국에서의 재번역은 대체로 어느 정도의 시간 경과와 함께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심지어는 동시대에 복수의 재번역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두에서 예로 든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2012년 한 해에만 15편⁴⁾ 이상의 번역서가 동시에 출판되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도 2013년 한 해에만 15종 이상의 번역서가 중복 출판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출판계의 고전문

野崎孝譯(1977年、集英社刊『世界文學全集』第77卷收錄)

中山善之譯(2013年9月、柏艸舎<シリーズ世界の文豪>)

小川高義譯(2014年9月、光文社<光文社古典新譯文庫>)

- 3) 매해 평균 20만권 이상 책이 출판되는 미국 출판 시장에서 번역 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그 중에서도 소설과 시로만 영역을 좁히면 0.7% 정도에 불과하다.(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4) 민음사, 문학동네, 시공사, 보물창고, 펍킨카페, 느낌 있는 책, 현대문화센터, 네버엔딩스토리, 아름다운날, 지식서관, 다상, 온이퍼브, 랭귀지북스, 책 만드는 집, 열린 책들 등

학 재번역 과열양상에 주목하고 이들 재번역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들 재번역을 문학작품 재번역 가설로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연구 질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적 지위의 정전급 번역이 부재한 상태에서 반복·재생산되고 있는 순수고전 재번역 간의 관계는 뎀(Pym)의 능동적인 재번역(active retranslation)과 수동적인 재번역(passive retranslation) 가설 가운데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

둘째, 순수고전 재번역은 베르망(Berman)의 재번역 가설대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재번역일수록 원문에 가까운 번역(ST oriented)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연구 질문은 『人間失格』 재번역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고, 두 번째 연구 질문은 『人間失格』 재번역과 ST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질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대상을 일본의 대표적인 순수문학 작가 太宰治의 『人間失格』으로 한정하고, 그 작품의 한국어 재번역에 대한 사례 분석(case study)을 통해 상기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고자 한다.

2. 이론적인 배경

2.1 한국출판계의 고전문학 재번역 현황 및 특징

한국은 ‘번역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출판시장에서 번역서 비중이 높다. 『The New York Times』 2007년 4월 15일자 주말판 북리뷰에 따르면, 한국은 한 해 발행된 책 중 번역서 비율이 29%로 세계 1위를 기록한다. 참고로 외국의 번역서 발행 비율을 보면 중국이 4%, 미국이 2.6%, 일본은 8%이다(같은 신문). 명성이나 비용 효율, 문학 고전의 출판이 가져다주는 보장된 수익은 출판사가 기존 번역을 리사이클하거나 재번역하는 또 하나의 이유(Milton 2001; Koskinen & Paloposki 2003; Venuti 2003; 임순정 2010)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고전에 대한 재번역 과열 양상은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인 백원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미 상품성이나 판매량이 검증되어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속한 검토와 저렴한 번역을 거쳐 빠른 시간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빠르며, 저작권료 부담이 국내 저자에게 지불하는 인세나 원고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 다양한 경제원칙에 기인한다. (백원근 2005: 23)

자본력과 기획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출판사가 많은 한국의 열악한 출판 현실이 번역출판대국의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한기호에 따르면, 과거 한국의 적지 않은 출판사들이 일본만화뿐 아니라 외국고전 등의 번역출판으로 세를 키웠고, 스테디한 고전은 몇 십 군데, 심지어 100여 종이 넘게 중복 출판되기도 했다(한기호 2011: 12). 실제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어린 왕자』는 100여종이 넘게 재번역⁵⁾되는 등 번역서의 중복출판이 한국 출판계의 하나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1>과 같이 번역도서 분야 중에서 문학이 2,598종(2014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2014년 번역도서 분야별 현황⁶⁾

(단위: 종, %)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습참고	아동	만화	계
2014년	165	579	508	1,424	194	691	404	64	2,598	225	0	1,716	1,828	10,396
2013년	121	589	474	1,142	214	704	298	76	2,130	215	0	1,749	1,589	9,301
증감률	36.4	-1.7	7.2	24.7	-9.3	-1.8	35.6	-15.8	22.0	4.7	0	-1.9	15.0	11.8

5) 일본에서도 岩波 출판사와의 독점 번역출판권이 2005년에 끝나면서 2005년 이후 많은 번역서들이 나왔다. 총 21편의 재번역서가 나왔고, 주로 2005년과 2006년에 집중적으로 출판되었다. 이렇게 많은 번역서가 나온 것은 일본 출판시장에서 상당히 드문 현상이다. 이들 번역서가 한국 고전 재번역과 다른 점은 첫째, 총 번역서 수가 훨씬 적다는 점, 둘째, 1차적 지위번역서(岩波출판)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6)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번역서의 원산국별 비중을 보면 일본이 42.2%를 차지해 한국시장에서 일본 도서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쏟아져 나오는 일본문학에 대한 번역서 중 대중문학뿐만 아니라, 순수문학에 속하는 일본고전에 대한 재번역서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윤상현(2011: 102)에 따르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雪国』은 1960년부터 2003년까지 73회나 번역 출판되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羅生門』은 1960년부터 2005년까지 25회, 미우라 아야코의 『氷点』은 1965년부터 2004년까지 29회에 이른다. 상술한 예는 한국 출판시장에서 서양 고전뿐만 아니라 일본 명저에 대해서도 많은 양의 재번역이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출판시장에서 이렇게 반복·재생산되고 있는 일본순수문학 재번역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들 고전 재번역은 짧은 기간 안에 동시 다발적으로 출판되어 나오기 때문에, 텍스트 노화(aging of text)로 인한 재번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번역서 총수에 있어서도 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둘째, 1차적 지위를 차지하는 번역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재번역서가 중복 출판되고 있다. 한국의 고전 번역 시장에서 이렇게 정진급 번역이 부재한 이유는 대중문학작품과 달리 순수문학작품이 출판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 어렵다는 점, 한국에서 저작권 개념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⁷⁾ 고전에 대해서는 특정 출판사가 번역 저작권을 독점하는 시기가 없었다는 점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출판사의 규모 및 명성에 따라 재번역서의 판매 부수에는 차이를 보인다.

2.2. Pym의 재번역 가설과 일반적인 재번역 동기

핼(Pym 1998)은 재번역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재번역을 크게 ‘능동적인 재번역’(active retranslation)과 ‘수동적인 재번역’(passive retranslation)으로 분류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재번역을 하는 번역가가 기존 출판된 번역을

7) 한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정해짐. 이후 한-EU FTA 이행입법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법이 개정, 2013년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의식하고 목표 문화에서 기존 번역과 치열하게 충돌하거나 경쟁을 벌이면 능동적인 재번역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인 재번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능동적인 재번역은 기존 번역 전략에 동의하지 않거나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재번역가는 기존 번역본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의도적인 차별화를 도모하게 된다. 능동적인 재번역은 기존 번역에 대한 이러한 의식적인 차별화는 1차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struggle)” (1998: 82)의 과정이다. 반면, 수동적인 재번역은 기존에 출판된 번역을 인식했을 수도 있고 인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중에 이루어지는 재번역이 기존의 번역과 심각하게 경쟁하거나 충돌하지 않는 번역이다(1998: 82). 능동적 재번역과 달리 수동적인 재번역들 사이에는 1차적 지위의 번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번역들 간에 경쟁 관계가 없거나 느슨하다. 번역의 노화로 인한 시대적인 재번역이나 공시적 바운더리에서 갈라진 지역적인 재번역(방언(dialect) 등)이 수동적인 재번역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70년대 일본어 중역에 대한 새로운 재번역(시대적 재번역)이나, 동일 ST에 대한 제주도와 서울에서의 공시적인 번역(지역적인 재번역)등이 해당된다. 수동적인 재번역의 가장 큰 특징은 번역서의 선택과 번역 과정에서 아무런 갈등 요소와 충돌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5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 이루어지는 일본어 중역에 대한 재번역은 이미 기존 중역이 독자들에게 시대적으로 낡은 번역으로 인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번역(중역)과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충돌할 필요가 없다. 공시적으로 출판되는 복수의 지역어 재번역(서울과 제주도의 방언) 역시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끼리 서로 의식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번역학 내에서 설득력을 갖는 재번역 동기를 크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번역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원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서 목표 언어 규범과 인식에 변화가 왔을 때와 관련), (2) ST의 새로운 편집본이 출판돼서 그게 표준화 됐을 때, (3) 기존 TT가 낡은 문체로 인식될 때, (4) 재번역이 목표 언어권에서 해야 할 특수한 기능이 있을 때(예: 영국 시장과 미국시장에서 동시에 재번역 돼야할 때), (5) ST에 대한 다른 해석이 정당화될 때(Vanderschelden 2000: 5-6)이다. 재번역 동기의 1)은 기존 번역과 재번역이 경쟁하거나 충돌 관계에 있기 때문에 펴의 능동적 재번역에, 나머지 2)~5)는 반대로 기존 번역과 재번역의 경쟁이나 충돌 관계가 느슨하기 때문

에 소극적 재번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본고의 첫 번째 연구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한국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일본고전 재번역들 사이의 관계는 뭘이 분류한 능동적인 재번역과 수동적인 재번역 가운데 과연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 일본고전에 대한 재번역 동기는 상기 5가지 재번역 동기 가운데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좀 더 뭘의 재번역 가설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고전 재번역은 이전 번역과 시간적인 거리가 먼 재번역(재번역동기 (3)번)이나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지역방언 번역(재번역 동기 (4)번)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재번역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이들 재번역들은 1차적인 지위를 가진 정전급 번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판되기 때문에 특정 번역을 강하게 의식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재번역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은 3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풀어가기로 한다.

2.3. 베르망(Berman)의 재번역 가설

앞서 뭘이 재번역간의 관계에 주목했다면, 프랑스 번역철학자 베르망(Berman 1990: 1)은 재번역의 역사적인 흐름과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재번역가설을 내놓는다. 그에 따르면 번역은 “불완전한 행위”(incomplete act)이기 때문에 번역은 오직 나중에 나오는 재번역들(later translations)을 통해서만 진화될 수 있다. 베르망은 모든 번역들은 태생적인 실패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특히 최초의 번역본에서 그 실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믿었다(1990: 5). 원천텍스트에 더 가까울수록 성공한 번역이라고 보는 베르망은 좋은 번역, 성공한 번역은 원천텍스트에 최대한 가까운 번역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의 논리에 따르면 원천텍스트와 거리가 먼 번역은 실패한 번역, 나쁜 번역이 될 것이다. 번역자가 번역의 수용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초의 번역은 ST(Source Text)의 ‘이질적인 부분(otherness)’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Bensimon 1990; Berman 1990). 다시 말해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초기 번역에서는 자국화 번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나중에 이루어진 번역일수록 ST의 문자(letter)와

문체(style)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 출발어 문화와 도착어 문화 간의 문화적인 거리감이 형성된다”(Berman 1990: 5). 감비어(Gambier)는 초기 번역이 문화적인 수용성과 가독성을 고려해 이국성을 최대한 견어내고, 재번역이 진행될수록 이국성을 드러낸다는 베르만의 주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

첫 번째 이루어지는 번역들은 항상 문화적인 요구와 편집자의 요구라는 명목 하에 목표문화에 더 동화되고 이질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이런 관점에서 재번역은 원천 텍스트로의 **복귀(return)**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Gambier 1994: 414, 원문 강조)

베르망의 재번역 가설은 감비어 외에도 많은 학자들(Chesterman 2000; Koskinen and Polapowski 2003; Plapowski and Koskinen 2004; Brownlie 2006; Susam-Sarajeva 2006; Desmidt 2009; Stewart 2009 등)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예를 들면, 초기 번역을 통해 ST 문화가 TT 문화에 적용된 이후 이루어지는 재번역은 ST로의 회귀를 증명하는 증표(Koskinen and Polapowski 2003)라든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번역들은 먼저 이루어진 번역들보다 오리지널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직 재번역만이 훌륭한 번역이 될 수 있다(Chesterman 2000)는 주장 등은 모두 베르망의 재번역 가설과 궤를 같이 한다. 베르망의 번역가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재번역일수록 ST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Chesterman 2004: 8), 초기 번역들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번역보다 더 자국화되어 있다(Koskinen and Polapowski 2004: 27)는 것이다.

한편, 이상적인 번역론을 펼친 로빈슨(Robinson)은 기존 번역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낡은 것으로 폭넓게 인식될 때 재번역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1999: 1). 그는 자신의 이상적인 번역모델을 바탕으로, 번역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오리지널의 “시의성(timeliness)”이 확보된다고 강조한다. 로빈슨(1999)은 보완(Supplementarity)이라는 보편적인 재번역 방향을 내세우면서, 재번역을 1)시간적인 보완, 2)양적인 보완, 3)질적인 보완의 3가지 재번역 모델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시간적인 보완은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재번역이고, 양

적인 보완은 의미적, 통사적 보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질적인 보완은 문체와 미학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관련이 있다(1999: 2). 로빈슨의 재번역 모델에 있어서 보완(Supplementarity)이라는 용어는 베르망 가설의 질적인 완성(completion)과 대동소이한 개념이다. 다만, 베르망 가설에서는 ST에 가까운 번역을 질적인 완성으로 보았다면, 로빈슨의 보완 개념은 구체적으로 ST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빈슨의 이상적인 번역 모델을 바탕으로 고전 재번역에 대한 베르망 가설의 타당성을 시험해볼 것이다. 고전 재번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짧은 기간 안에 중복 출판되고 있기 때문에 로빈슨 모델 가운데 시간적인 보완을 위해 재번역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 3장의 분석에서는 상기 로빈슨의 3가지 모델 가운데 시간적인 보완을 제외한 양적인 보완(의미적, 통사적 보완)과 질적인 보완(문체, 미학적 보완)을 중심으로 『인간실격』 재번역을 분석, 기술하기로 한다.

3. 분석

3.1. 분석대상 및 분석 방법

3.1.1. 분석 대상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일본 고전문학작품은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人間失格(인간실격)』(1948년 출판)이다. 이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일본인이 근대문학 가운데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의 『心(마음)』(1914년 출판)과 함께 현재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스테디셀러 작품(1000만부 이상 발행)으로 분석 대상의 대표성이 확보된다. 둘째, 한국에서 많은 재번역서가 존재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순수문학작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고전에 대한 재번역을 분석하려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 특히 44세에 요절한 太宰治(1909년~1948년)는 작가 사후 50년이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돼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번역서가 중복 출판(10종 이상)되었다. 셋째, 요설체(饒舌體)로 알려진 다자이 오사무의 독특한 문체는 베르망의 재번역가설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즉, 번역가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요설체를 살렸는지 여부가 원전에 가까운 번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쉼표를 많이 사용하고 문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원문과 번역문의 차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분석에 용이하다.

분석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번역서 중,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번역서(1998년 이후)로 한정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인간실격』 재번역서의 출판 간격이 짧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1998년 이후 부터⁸⁾이기 때문이다. 즉, 1998년 이후의 번역서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짧은 기간 안에 중복 출판되는 고전 재번역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본고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998년은 다자이 오사무 사후 50년이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봉인이 해제된 시기로, 이는 많은 재번역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인간실격』 번역서를 출판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오유리 역(문예출판사, 2016년 개정), 2004년 김춘미 역(민음사, 2017년 개정), 2004년 송숙경 역(을유문화사, 2009년 개정), 2010년 양윤옥 역(시공사, 2017년 개정), 2015년 김아영 역(보물창고), 2016년 허호 역(웅진지식하우스), 2017년 5월 김동근 역(소와다리), 2017년 8월 김민준 역(자화상), 2017년 11월 김소영 역(더 스토리), 2018년 1월 이은정 역(더디)의 10종이다.

3.1.2.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2003년~2010년까지의 『인간실격』 번역서를 재번역 제1기,

8) 1998년 이전 번역서로는 1961년 방기환 역(신태양사), 1982년 박홍근 역(심지출판사), 1995년 허호 역(웅진출판사)이 존재한다. 단 허호 역의 『인간실격』은 2016년 번역 개정판이 나오고, 개정판에서는 어휘나 문체면 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져 2016년 번역서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015년~2016년까지를 재번역 제2기, 2017년~2018년 1월까지를 재번역 제3기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2003년~2010년 사이의 재번역을 제1기로 묶은 이유는 이 시기의 번역서가 모두 개정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번역서의 개정판이 나온다는 것은 (1)번역서가 출판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의미와 (2)어느 정도의 출판 부수가 보장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후 이루어지는 재번역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시기의 번역서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5년~2016년까지의 재번역 제2기에는 시기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2017년(2018년 1월 포함) 번역서를 포함하지 않고 재번역 제3기로 묶어 따로 분류하기로 한다. 2017년(2018년 1월 포함)에는 한 해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번역서가 중복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번역서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거나 참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재번역서들 사이의 관계는 핼(Pym)의 능동적 재번역의 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시기는 별도로 분류(재번역 제 3기)하고, 이 시기의 재번역에서는 어떠한 번역 전략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본고에서 분석할 『인간실격』 재번역을 시기별로 분류한 표이다.

〈표 2〉 『인간실격』 재번역 시기별 분류

제1기	TT1: 2003년 오유리 역(문예출판사, 2016년 개정)
	TT2: 2004년 김춘미 역(민음사, 2017년 개정)
	TT3: 2004년 송숙경 역(을유문화사, 2009년 개정)
	TT4: 2010년 양윤옥 역(시공사, 2017년 개정)
제2기	TT5: 2015년 김아영 역(보물창고)
	TT6: 2016년 허호 역(웅진지식하우스)
제3기	TT7: 2017년 5월 김동근 역(소와다리) :세로 쓰기 출판
	TT8: 2017년 8월 김민준 역(자화상) :일본어 문고판 크기 출판
	TT9: 2017년 11월 김소영 역(더 스토리)
	TT10: 2018년 1월 이은정 역(더디)

이렇게 시기별로 분류한 『인간실격』 재번역의 일부 사례(번역 예문)에 대해 어휘 차별화, 문화소, 의미의 명시화 및 통사구조 변화, 문체(요설체)를 기준으

9) 한국에서는 개정판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다. 『인간실격』 2004년 송숙경 역(을유문화사)은 5년 뒤인 2009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로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일본고전재번역이 폼의 번역가설(능동적 재번역과 수동적 재번역)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지(연구문제 1)를 살펴보기 위해 나중에 이루어진 재번역이 앞선 번역(들)에 대해 어휘를 차별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에 번역의 자국화 또는 이국화를 평가할 수 있는 텍스트 요소들(문화소, 명시화 및 통사구조, 문체)을 바탕으로 10개의 재번역을 분석해, 베르망의 가설대로 재번역이 뒤로 갈수록 이국화(TT-oriented)되는지 검증해보기로 한다.

3.2. 사례 분석

3.2.1. 어휘의 차별화

폼(1998)의 능동적 재번역 가설에 따르면, 이전 번역은 이후 이루어지는 재번역과 경쟁 및 충돌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재번역은 앞선 번역을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전 번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능동적인 재번역 관계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 요소는 어휘이다.

(1) 사례 1

〈표 3〉

ST	結局、自分は、この男にさえ <u>打ち破られました。</u> BT10: 결국, 저는, 이 남자에게조차 <u>박살이 났습니다.</u> (p.41)
제1기	TT1 결국, 나는 이 남자에게조차 <u>격파당하고 말았습니다.</u> (p.44)
	TT2 저는 결국 이 사나이한테조차 <u>당하고 말았습니다.</u> (p.45)
	TT3 결국 나는 이 사나이에게까지도 <u>간파당하고 말았습니다.</u> (p.243)
	TT4 결국 나는 그 자에게도 <u>호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u> (p.45)
제2기	TT5 결국 저는 그에게조차 <u>무너지고 말았습니다.</u> (p.42)
	TT6 결국 저는 이 사내에게도 <u>패하고 말았습니다.</u> (p.54)
제3기	TT7 결국 저는 이 남자에게도 <u>박살이 났습니다.</u> (p.63)
	TT8 저는 결국 이 사나이한테조차 <u>당하고 말았습니다.</u> (p.56)
	TT9 결국 저는 이 남자에게까지 <u>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u> (p.52)
	TT10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u>합락당하고 말았습니다.</u> (p.47)

10) Back Translation (역번역)

사례 1 ST의 ‘打ち破られました’는 ‘(완전히) 깨다’, ‘타파하다’. ‘(적을) 쳐부수다’, ‘격파하다’. ‘무찌르다’의 의미에 대한 수동형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은 ‘당하다’ 정도이다. 이렇게 ST와 TT의 의미가 일대일 대응(예: 家→집, 食べる→밥을 먹다 등)이 되지 않는 경우, 특히 일본어의 수동형일 경우에는 번역가에 따라 다양한 한국어 번역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번역어는 2~3개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기 예문 가운데 어휘가 겹치는 경우는 TT2와 TT8, TT4 (당하고 말았습니다/호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TT7과 TT9(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뿐이다. 게다가, TT8은 분석 결과 대부분 TT2에 대한 표절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외로 두어야 한다. 이는 사례 2와 사례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T4(2010년)는 TT2(2003년)를 의식해서 같은 어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호되게’라는 부사를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출판(제3기)된 재번역끼리는 서로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TT7과 TT9처럼 동일 어휘들이 자주 발견된다. 그러나 제3기의 재번역은 <표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체로 앞선 번역들(제1기와 제2기)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어휘를 차별화하고 있다. 즉, 제3기 재번역간의 관계는 필의 수동적 재번역에 해당하고, 제3기 재번역과 이전 번역들(제1기와 제2기)과의 관계는 능동적 재번역에 위치한다. 다만, 고전 재번역에서는 1차적 지위를 차지하는 정전급 지위의 번역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3기 재번역들이 경쟁하는 대상은 복수의 번역서들(제1기와 제2기 재번역들)이 된다. 따라서 1차적 지위가 있는 경우의 능동적 재번역보다 경쟁관계는 느슨하다. 역시 제2기 재번역은 시간적으로 앞서 출판된 제1기 재번역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고, 이는 사례 1처럼 제1기 재번역에 대한 제2기 재번역의 의식적인 어휘 차별화로 상징된다.

(2) 사례 2

<표 4>

ST		遊び上手といふのか、(p.42) BT:노는 걸 잘 한다고 해야 할까,
제1기	TT1	노는데 도사라고나 할까, (45)
	TT2	잘 놀 줄 안다고나 할까 (46)
	TT3	요령 있는 난봉쟁이라고나 할까(244)

	TT4	노는 데는 선수라고 할까(46)
제2기	TT5	한가닥 놀아본 듯한 호리키는 (43)
	TT6	노는 재주가 있다고나 할까(55)
제3기	TT7	놀 줄 안다고 할까. (p.64)
	TT8	잘 놀 줄 안다고 할까(57)
	TT9	노는 데는 도가 트었다고 해야 하나 (53)
	TT10	잘 논다고 해야 하나(47-8)

사례 2에서도 제1기와 제2기 재번역 모두 앞선 번역에 대해 같은 어휘의 반복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T8은 TT2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TT2의 표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제3기 재번역들은 전체적으로 앞선 번역들에 대해 어휘적인 차별화를 피하지만, 명시적인 표현들이 앞선 번역에서 이미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적인 표현들(놀 줄 안다, 잘 놀 줄 안다, 잘 논다)을 사용하고 있다. 사례 2에서도 제3기 번역끼리는 서로 의식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3) 사례 3

〈표 5〉

ST	女達者 (BT: 여자 달인)	
제1기	TT1	여자 다루기에 고수(p.47)
	TT2	여자를 잘 다루는 도사(p.48)
	TT3	오입쟁이(p.246)
	TT4	여자킬러(p.48)
제2기	TT5	여자달인(p.44)
	TT6	바람둥이(p.57)
제3기	TT7	선수(p.67)
	TT8	여자를 잘 다루는 도사(p.60)
	TT9	선수(p.55)
	TT10	여자를 잘 다루는 자(p.50)

사례 3의 ‘女達者’ (ST)는 독자들에게 임팩트가 강한 어휘이다. 특히, 『인간실격』과 같은 단편소설에서는 이러한 어휘가 다른 어휘들보다 독자들의 인상에 크게 남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번역가는 짧지만 이 단어를 어떠한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TT3의 ‘오입쟁이’나 TT4의 ‘여자 킬러’와 같은 한국어 표현은 상당히 자극적으로 명시화 시킨 표현이다. 따라서 나

중에 번역을 하는 재번역가가 설사 같은 어휘를 떠올렸다 하더라도 독자들에게 독창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어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TT8은 역시 TT2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책의 3분 1 이상에서 발견되고 있다. 사례 3에서도 제3기 번역끼리는 같은 어휘가 발견되었는데(TT7과 TT9의 ‘선수’), 이는 공식적으로 번역되는 재번역서의 관계는 능동적인 관계이기보다는 수동적인 관계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3.2.2. 문화소

<표 6>

ST	東北	袴	甘納豆	浴衣	さらさ	千代紙細工	
제1기	TT1	동북지방	하카마	콩버무리	유카타	사라사	치요가미세공
	TT2	동북지방	바지	설탕에 절인 콩	홀겹여름옷	꽃무늬	일본의 전통종이공예
	TT3	동북지방	하카마	아마넛토	홀옷	사라사무늬	색종이 접기
	TT4	도호쿠	예복	콩과자	얇은 옷	사라사	전통색지공예
제2기	TT5	도호쿠	하카마	아마넛토	유카타	사라사	종이공예
	TT6	동북지방	정장	콩조림	유카타	사라사	지요종이세공
제3기	TT7	도호쿠	하카마	꿀콩	유카타	오색	치요가미
	TT8	동북지방	바지	단콩	홀겹여름옷	꽃무늬	일본의 전통종이공예
	TT9	도호쿠	하카마	아마넛토	유카타	사라사	전통색지공예품
	TT10	도호쿠	바지	달콤한 콩과자	유카타	충천연색	치요가미사이쿠

<표 6>의 문화소는 일본의 지명, 의복, 음식, 전통에 관한 어휘들이다. 필의 능동적 재번역과 수동적 재번역 가설을 가장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 요소가 어휘라면, 베르망의 재번역 가설을 시험해볼 수 있는 가장 극명한 텍스트 요소는 문화소이다. 베르망의 가설대로 과연 일본 고전 재번역에서 문화소의 이국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국화→이국화’로 이행할지, 아니면 혼재된 양상을 보일지, 또는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일지 문화소 번역 사례를 통해 검증해보기로 한다.

TT1은 분석 대상 가운데 초기번역이지만 6개의 문화소 가운데 이국화 3개(하카마, 유카타, 사라사), 자국화 2개(동북지방, 콩버무리), 1개의 혼합(치요가미세공) 결과가 나왔다. 민음사의 TT2는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 대상

재번역 가운데 가장자국화 번역되었다. 6개 문화소 모두 자국화 전략으로 번역되었고, 논문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 밖의 문화소들도 대부분 자국화 번역되었다. TT3는 이국화 2개(하카마, 아마넛토), 자국화 3개(동북지방, 홑옷, 색종이 접기), 혼합 1개(사라사 무늬)로 나타났다. TT4는 이국화 2개(토호쿠, 사라사), 자국화 4개(예복, 콩과자, 얇은 옷, 전통색지 공예)로 TT2 다음으로 자국화 전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재번역 제1기에서는 자국화 경향을 뚜렷이 보이는 재번역서가 2종 확인되었다.

제2기 번역 가운데 TT5는 이국화 5개(토호쿠, 하카마, 아마넛토, 사라사), 자국화 1개(종이공예)의 번역전략을 취한 데 반해, TT6은 이국화 2개(유카타, 사라사), 자국화(동북지방, 정장, 콩조림), 혼합(지요종이세공)으로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을 골고루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기 번역에서는 TT7이 이국화 4개(토호쿠, 하카마, 유카타, 치요가미), 자국화 2개(꿀콩, 오색)로 이국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T8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T2의 표질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화소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TT9는 이국화 5개(토호쿠, 하카마, 아마넛토, 유카타, 사라사), 자국화 1개(전통색지공예)로 뚜렷한 이국화 전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TT10은 이국화 3개(토호쿠, 유카타, 지요가미사이쿠), 자국화 3개(바지, 달콤한 콩과자, 충천 연색)으로 이국화와 자국화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상기 분석 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시기	TT	자국화	이국화	혼합	번역 경향
제1기	TT1	2개	3개	1개	
	TT2	6개	0개	0개	자국화
	TT3	3개	2개	1개	
	TT4	4개	2개	0개	자국화
제2기	TT5	1개	5개	0개	이국화
	TT6	3개	2개	1개	
제3기	TT7	2개	4개	0개	이국화
	TT8	6개	0개	0개	TT2표질로 분석 제외
	TT9	1개	5개	0개	이국화
	TT10	3개	3개	0개	

<표 7>에서 확인되듯이 제1기 재번역에서는 자국화 경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고, 제 2기에서는 이국화를 시도하는 재번역이 출현하였으며, 제3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이국화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일본고전의 문화 소 재번역에 대해서는 베르망 가설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3. 의미의 명시화

의미의 명시화는 대표적인 자국화 전략 중의 하나이다. 『인간실격』 재번역은 제1기(TT1~TT4)에서 의미의 명시화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8>

	ST	TT
TT1	①無理をしてまで、たいてい食べます (p.10) BT: 무리를 하면서까지, 거의 다 먹습니다.	배가 부르다 싶어도 꾸역꾸역 먹습니다(p.14)
	②おかずも、たいていきまっています(p.11) BT: 반찬도, 대개 정해져 있어서	먹을 것도 대개는 그 밥에 그 나 물이어서(p.15)
	③自分は家がすぐ近くなので(pp.27-8) BT:저는 집이 바로 근처여서	나는 집이 <u>옆</u> 이면 <u>코</u> 닿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p.32)
TT2	①病弱で、よく寝込みましたが (p.10) BT: 병약해서, 자주 자리에 누웠습니다만	몸이 약해서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p.14)
	②家中の大笑いでした (p.18) BT:온 집안이 크게 웃었습니다.	온 집안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p.23)
	③猫撫で声に似た甘ったるい声で (p.27) BT: 간들거리는 목소리와 <u>달콤</u> 한 목소리로	<u>여자를 꼬일 때</u> 같은 달콤한 목소리로(p.33)
TT3	①自分の言動に、みじんも自信を持ってず、 (p.14) BT: 제 언동에, 조금도 자신을 갖을 수 없었고	나의 언동에 <u>눈곱만한 자신도</u> 가질 수 없었고(p.211)
	②「できる」事に酔って (p.19) BT: ‘공부를 잘 한다’는 것 때문에	‘수재’라는 것 때문에(216)
	③お茶目に見られる事に成功しました。 (p.20) BT: 장난꾸러기(개구쟁이)로 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개구쟁이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p.218)

TT4	①めずらしいもの、豪華なもの(p.11) BT: <u>진귀한 음식</u> , 호화스러운 음식	<u>별미나</u> 비싼 음식은(p.15)
	②お茶目に見られる事に成功しました。 (p.20) BT: 장난꾸러기(개구쟁이)로 <u>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u>	장난꾸러기라는 것으로 나를 <u>위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u> (p.24)
	③自分は家が <u>すぐ近く</u> なので(pp.27-8) BT:저는 집이 <u>바로 근처</u> 여서	나는 집이 <u>바로 코앞</u> 인지라 (p.32)

상기 <표 8>에서 우리는 『인간실격』의 명시화 전략이 주로 문학적인 관용어나 비유 표현, 상위어 또는 하위어(그 밥에 그 나물, 옅어지면 코 닿을 거리, 웃음바다, 별미 등)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명시화 전략은 TL 문화에서 번역의 가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취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미를 명시화시켜 번역한 제1기 재번역들은 목표 문화 중심적인(TT-Oriented), 즉 자국화 번역 전략을 사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2기와 제3기에서도 명시화 전략이 취해진 부분(예; TT6: 禍の固まり (BT: 재앙 덩어리, p.12)→재앙 보따리/ 猫撫で声に似た甘ったるい声で (간들거리는 목소리와 달콤한 목소리로, p.27)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등)이 있기는 하지만, 제1기만큼 두드러지는 않는다.

3.2.4. 통사구조 변화

<표 9>

ST	TT2
... <u>考えれば考えるほど</u> 、自分には、わからなくなり、 (...) 何を、どう言っ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のです。 そこで <u>考え出したのは</u> 、道化でした。(13) BT:... <u>생각하면 생각할수록</u> , 저는 알수가 없어서, (...)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u>알수가 없었던 것</u> 입니다。 <u>그래서 생각해낸 것이</u> , 익살이었습니다。	<u>그래서 생각해낸 것이</u> 익살이었습니다。 <u>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수가 없어졌고</u> (...)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u>몰랐던 것</u> 입니다。(17)

분석 대상 10개의 재번역서 가운데 민음사의 TT2는 문화소가 대부분 자국화 번역(3.2.2 참조)되었고, 의미가 명시화(3.2.3 참조)되어 있다. 이와 함께

TT2에서는 ST의 어순을 바꾸거나 문장 순서를 바꾸는 번역 전략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번역전략 역시 TT2의 자국화 번역의 일환이다. <표 9>은 ST의 문장 순서를 바꾼 TT2의 예문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순수문학 번역은 대중소설번역에 비해 원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번역자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 번역전략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TT2처럼 문장의 순서를 과감하게 바꾸는 경우는, 특히나 어순이 같은 일한 번역에서는 흔하지 않은 번역전략이다. 실제로 『인간실격』의 나머지 번역들에서는 TT4를 제외하고 TT2처럼 문장 구조나 순서를 크게 바꾸는 번역전략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TT2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투명하게 번역되었고, 그런 만큼 가독성과 수용성이 높다. 실제로 민음사 출판의 TT2는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는 공신력과 규모를 갖춘 민음사라는 출판사의 명성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자국화 전략이 많이 발견된 TT4에서도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번역 전략이 간헐적으로 발견(예: 三十くらい、眼鏡をかけて、病身らしい背の高い姉嬢(BT:30정도의, 안경을 끼고, 아픈 듯한 키가 큰 누나, p.28)→안경을 쓴 서른 살 정도의 어디가 아픈 듯한 키 큰 누나, p.32)되었다.

3.2.5. 문체

<표 10>

ST(Source Text)	BT(Back Translation)
<p>私は、その男の写真を三葉、見たことがある。一葉は、その男の、幼年時代、とでも言うべきであろうか、十歳前後かと推定される頃の写真であって、その子供が大勢の女のひとに取りかこまれ、(それは、その子供の姉たち、妹たち、それから、従姉妹たちかと想像される)庭園の池のほとりに、荒い縞の袴はかまをはいて立ち、首を三十度ほど左に傾け、醜く笑っている写真である。</p>	<p>나는, 그 남자의 사진을 3장, 본 적이 있다. 1장은, 그 남자의, 유년시절, 이라고 해야 할까, 10살 전후정도로 추정되는 사진으로, 그 아이가 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그것은, 그 아이의 누나들, 그리고 사촌 누나들로 상상된다) 정원 연못가에, 굵은 줄무늬 하카마를 입고 서서, 고개를 30도 정도 왼쪽으로 기울이고, 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첨표 11개)</p>

상기 <표 10>은 『인간실격』의 요설체를 설명하기 위한 예문이다. 이렇게 많은 첨표를 사용해가면서 길고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 요설체는 다자이 오사무 문학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체이다. 『인간실격』에는 이러한 요설체가 일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가 요설체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 요설체는 『인간실격』의 문학적성과 미학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표 9>의 역번역(Back Translation)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쉼표를 일일이 다 살려주게 되면, 가독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 번역가는 요설체 문장이 『인간실격』의 문학적성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독성과의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가의 딜레마는 TT2의 번역가 김춘미의 역자 후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번역문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구두점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독자들을 위해 옮기지 않았지만 다자이의 문체를 그대로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 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둔다. (역자 후기: 189)

재번역 제1기의 번역가들은 요설체와 가독성 사이의 딜레마에서 주로 가독성을 선택(TT2, TT3, TT4)했다. 이들 번역가들은 번역에서 원문의 구두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긴 문장들을 짧게 잘라내서 간결화시켰다. 그러나 제2기 재번역부터 가독성보다는 원문의 문체를 적극적으로 살리려는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제2기(TT5, TT6)에서는 요설체를 살린 번역 문장 비중이 늘어났다면, 제3기 재번역 가운데는 100% 원문의 문장 구조와 구두점을 살려낸 재번역(TT7)도 등장하게 된다. 제2기(TT5, TT6)부터 가독성과 원문의 문체 사이의 갈등 속에서 원문의 문체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제2기부터 이국화를 시도하는 번역전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재번역의 이국화 흐름은 로빈슨의 이상적인 모델 가운데 질적인 보완에 해당된다. 밑의 예문들은 요설체를 살리기 위한 번역전략들의 흔적을 보여준다.

<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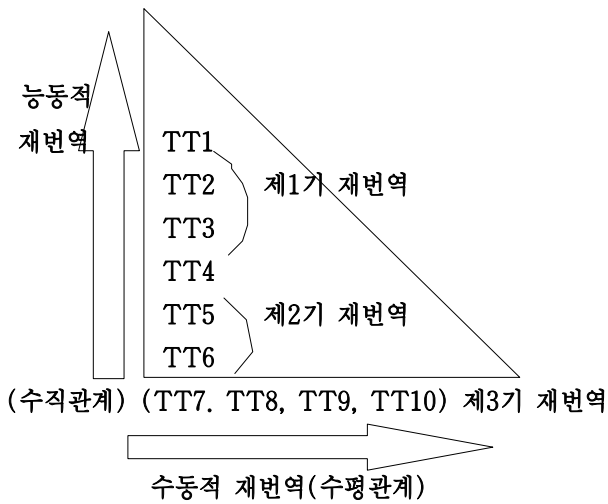
TT5	그러면 내가 그들이 말하는 ‘생활’의 밖에 있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들, 인간들의 눈에 거슬러서는 안된다, 나는 없는 것이다, 바람이다, 하늘이다, 그런 생각만이 점점 더 심해져서, 저는 우스갯것으로 가족들을 웃기고, 또한 가족보다 더 이해할 수 없고 무서웠던 하인이나 하녀에게까지 필사적으로 우스갯것을 서비스했던 것입니다. (17) (쉼표 8개)
TT6	그러면 남들은 내가 그들의 이른바 ‘생활’ 밖에 있어도 그다지 신경을 쓰

	지 않겠지, 하여튼 그 인간들의 눈에 거슬리면 안된다, 나는 무다, 바람이다, 하늘이다, 하는 생각만 커져서 저는 익살을 떨어 가족들을 웃기고 또한 가족들보다 훨씬 불가사의하고 두려운 머슴이나 하녀들에게까지 필사적인 익살을 서비스하였습니다(23) (첨표 5개)
TT7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그들의 소위 「삶」밖에 있어도. 그걸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닐까, 어쨌든 저 인간들의 눈에 거슬러서는 안돼, 나는 무다, 바람이다, 허공이다, 이런 생각만 쌓여서, 저는 광대짓으로 가족들을 웃기고, 또, 가족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고 무서운 머슴과 하녀들에게까지, 필사적인 광대짓 서비스를 했던 것입니다. (23) (첨표 12개)

한편, 제3기 재번역기에도 요설체와 가독성 사이의 고민은 여전히 이어진다. TT7이 원문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해 ‘세로쓰기’를 시도하고, 100% 요설체를 살리면서 완벽한 이국화를 추구한 반면, TT9와 TT10의 번역가는 가독성과 수용성을 위해 과감히 요설체를 포기하고 있다. 그만큼 자국화와 가독성은 번역가에게 있어, ST에 대한 충실성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번역 전략이다.

3.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분석 결과 재번역의 경쟁 대상이 되는 1차적인 지위의 기존 번역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간실격』 재번역들은 복수의 이전 번역들을 골고루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어휘를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제3기의 재번역들은 같은 시기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경쟁 관계나 충돌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기의 번역 간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펴의 재번역 가설 중 수동적인 재번역이 된다. 그러나 제3기의 번역들을 포함해, 모든 재번역들은 앞선 번역(들)을 의식하고, 최대한 같은 어휘의 사용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제3기의 수평적 관계를 제외하고 제1기부터 제2기, 그리고 제3기의 수직적인 재번역 관계는 펴의 능동적인 재번역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은 1차적인 지위의 번역서가 존재하고 그 번역서와 1차적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능동적인 재번역보다는 느슨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림 1〉 『인간실격』 재번역 사이의 관계

다음으로 『인간실격』 재번역의 자국화 또는 이국화를 평가(문화소, 의미의 명시화, 통사구조 변화, 문체)한 결과, 제1기에서는 자국화 경향이 두드러진 반면, 제2기의 재번역에서는 이국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보였고, 제3기에서는 베르망이 이상적인 번역으로 꼽는 ST에 대한 ‘문자그대로의 번역(TT7)’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이국화 경향은 로빈슨의 이상적인 모델 가운데 양적인 보완(문화소, 의미의 명시화, 통사구조 변화) 및 질적인 보완(문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국화의 흐름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재번역일수록 ST에 가까운(ST-Oriented) 번역이 된다는 베르망 가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적 지위의 정진급 번역이 부재한 상태에서 반복·재생산되고 있는 순수고전 재번역 간의 관계는 뎀(Pym)의 능동적인 재번역(active retranslation)과 수동적인 재번역(passive retranslation) 가설 가운데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

→시기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의 재번역들(TT1~제3기 재번역)은 앞선 번역과 경쟁하는 능동적인 재번역 관계를 맺는다. 한편, 같은 시기에 중복 출판돼 시기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제3기 번역들은 서로 수동적인 재번역 관계에 위치한다.

둘째, 순수고전 재번역은 베르망(Berman)의 재번역 가설대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재번역일수록 원문에 가까운 번역(ST oriented)을 하고 있는가?

→제1기 재번역들(2003년~2010년)은 자국화 경향을, 제2기부터 제3기까지의 재번역들은 이국화 경향을 보이는 번역서의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일본순수고전재번역은 일정 부분 베르망의 재번역 가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해외 고전 재번역이 중복·출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재번역들 간의 관계, 그리고 재번역과 ST와의 관계에 대해 전자는 펴의 재번역 가설로, 후자는 베르망의 재번역 가설로 고찰해 보았다. 특히, 일본문학이 한국 출판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례 분석 대상을 일본 근대문학의 거장·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인간실격』 재번역을 시대별로 제1기(2003년~2010년), 제2기(2011년~2006년), 제3기(2007년~2008년 1월)로 분류하고, 이들 재번역들을 어휘 차별화, 문화소, 의미 명시화, 통사구조, 문체를 기준으로 시대 순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는 어휘 차별화를 통해 『인간실격』 재번역이 이전 번역들을 의식하고 의도적인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문화소와 명시화 통사구조(로빈슨 모델의 양적인 보완), 문체(로빈슨 모델의 질적인 보완)를 통해서 『인간실격』 재번역의 이국화 경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인간실격』 재번역 간의 관계는 다소 느슨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펴의 ‘능동적인 재번역’에 위치하고, 『인간실격』의 재번역과 ST의 관계는 베르망의 가설대로 재번역이 진행될수록 원문 지향적인 번역전략을 선택하는 번역들이 늘어났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한국출판시장의 외국고전에 대한 재번역 과열양상이었다. 이러한 고전 재번역의 특징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번역의 번역 사이클이 짧다는 점, 심지어 같은 시기에 복수의 출판사에서 여러 번역서들이 동시에 출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 결과 많은 양의 재번역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징에 천착해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을 선정해 재번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문학작품 재번역 가설을 통해 이들 재번역 간의 관계 및 재번역과 ST와의 관계를 고찰해보았다. 그러나 많은 해외 고전 재번역의 비교연구가 되지 못한 점은 사례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한국 출판시장에서의 고전 재번역 전체의 특징으로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다. 향후 많은 해외 고전 재번역(서양 고전 포함)에 대한 연구로 연구의 폭을 확장해 본고에서 도출한 결론을 확대·검토해 볼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긴 호흡의 연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백원근 (2005) 『도서 저작권 수출의 현황과 발전 방향』, 2005 문화산업백서 보고서
- 윤상인 외 (2008) 『일본문학 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서울: 소명출판.
- 임순정(2010) 「고전 문학 작품의 재번역양상」, 『번역학연구』 11(2): 127-49
- 한기호 (2008) 「번역과 번역비평의 과제:한국출판의 현황과 번역의 과제」, 『영미문학연구회 안과 밖』, 24권: 10-34
- Bensimon, P. (1990) 'Presentation'. *Palimpsestes* 4: ix-xiii.
- Berman, A. (1990) 'La retraduction comme espace de traduction'. *Palimpsestes* 4: 1-7.
- Brownlie, S. (2006) 'Narrative theory and retranslation theory'.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7(2): 145-70.
- Chesterman, A. (2000) A causal model for translation studies. In M. Olohan (eds.). *Intercultural Faultlines -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 Textual and Cognitive Aspects: Manchester: St. Jerome: 15-27.

- Chesterman, A. (2004) Hypotheses about translation universals, Hansen, G., Malmkjaer, K., & Gile, D. (eds). *Claims, changes and challenges in translation studies: selected contributions from the EST Congress, Copenhagen 2001*.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14.
- Desmidt, I. (2009) '(Re)Translation revisited.' *Meta* 54(4): 669-83.
- Gambier, Y. (1994) 'La retraduction, retour et détour', *Meta* 39(3): 413-17.
- Koskinen, K. and Polapowski, O. (2003) 'Retranslations in the age of digital reproduction.' *Cadernos de Tradução* 1(1): 19-38.
- Koskinen, K., & Paloposki, O. (2004) Thousand and one translations: Revisiting Retranslation. In G. Hansen, K. Malmkjaer, & D. Gile, (eds.), *Claims, changes and challenges*. Amsterdam: John Benjamins.
- Milton, John, (2001) 'Translating Classic Fiction for Mass Markets. The Brazilian Clube do Livro', *The Translator* 7 (1): 43-69.
- Pym, A.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Robinson, D. (1999) *Retranslation and ideosomatic drift*: www.umass.edu/french/people/profiles/documents/Robinson.pdf
- Stewart, P. (2009) *The persian letters in sevens English translations*. Available: <http://www.umass.edu/french/people/profiles/documents/Persian.pdf>
- Susam-Sarajeva, Ş. (2006) *Theories on the move: Translation's role in the travels of literary theories*. Rodopi: Amsterdam and New York. Tian
- Vanderschelden, I. (2000) Why retranslate the French classics? The impact of retranslation on quality. In M. Salama-Carr (eds.). *On translating french literature and film II*. Rodopi: Amsterdam and Atlanta: 1-18.
- Venuti, L. (2003) 'Retranslations: The creation of value'. *Bucknell Review* 47(1): 25-39.

<문학작품>

太宰治 (1948). 『人間失格』 東京: 新潮文庫

- 오유리 역 (2003, 2016 개정) 『인간실격』, 서울: 문예출판사
김춘미 역 (2004, 2017 개정) 『인간실격』, 서울: 민음사
송숙경 역 (2004, 2009 개정) 『인간실격』, 서울: 을유문화사
양윤옥 역 (2010, 2017 개정) 『인간실격』, 서울: 시공사
김아영 역 (2015) 『인간실격』, 서울: 보물창고
허호 역 (2016) 『인간실격』,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김동근 역 (2017) 『인간실격』, 서울: 소와다리
김민준 역 (2017) 『인간실격』, 서울: 자화상
김소영 역 (2017) 『인간실격』, 서울: 더 스토리
이은정 역 (2018) 『인간실격』, 서울: 더디

Hemingway. E. (1952) *The Old Man and the Sea*, New York: Paperback

福田恆存訳 (1953) 『老人と海』, 東京: チャールズ・E・タトル商会野崎孝

訳 (1977) 『老人と海』, 東京: 集英社刊

中山善之訳 (2013) 『老人と海』, 東京: 柏艚舎

小川高義訳 (2014) 『老人と海』, 東京: 光文社

夏目漱石 (1914) 『心』, 東京: 岩波書店

川端康成 (1935) 『雪国』, 東京: 新潮社

[Abstract]

Retranslation of foreign classical literature and retranslation hypothesis

Park, mij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feverish retranslation of foreign classical literature is one of the phenomena found in the publishing world of Korea. Such retransl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points. They are reproduced continuously and repeatedly within a short period by a number of publishers. On account of that, the total number of retranslations of an identical original is overwhelmingly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But unfortunately, there are no canonical translations equipped with the primary position in the publishing market. About this translation, retranslations are done competitively in a short-term period, so they are not the kinds of retranslation necessarily done for aging of text. Since there are no canonical translations equipped with the primary position, they are not the kinds of retranslation done for dissatisfaction with a particular translation or reinterpretation, either. There are two goals of this study. First, this author will figure out among the two retranslation hypotheses of Pym's, which the retranslation of foreign classical literature in Korea belongs to. Second, this researcher will conduct case study to see if these retranslations apply to Berman's retranslation hypothesis. To attain the goal, this study takes the Korean retranslations of Dazaiosamu (太宰治)'s 『Ningensikaku (人間失格)』, one of the representative Japanese classical literary works, as an object of analysis and tests Pym and Berman's translation hypotheses with them

▶ Key Words: retranslation hypothesis, classical literature, active retranslation, passive retranslation, domestication

▶ 주제어: 재번역 가설, 고전 문학, 능동적 재번역, 수동적 재번역, 자국화

박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부교수

ppsmjj@naver.com

관심분야: 기호학, 미디어번역, 재번역

논문투고일: 2018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20일